10.15686/fkl.2024..63.337 OPEN ACCESS

# 21세기 한국의 연쇄살인범 서사 또는 (저)개발의 지리적 상상력

## -영화 「살인의 추억」(2003)과 드라마 「괴물」(2021) 겹쳐 읽기

이혜령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목차

1 「살인의 추억」과 「괴물」이 맞붙은 시간과 장소
2 하선군 태령읍: 하층계급 남성성이 체현되는 곳
3 문주시 만양읍: (저)개발과 연쇄살인
4 APT, 저개발, 페미사이드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23515) 이 논문의 초고는 2024년 7월 10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UGM에서 개최된 AAS in Asia에서 이윤종·이진경·김현주 선생님과 함께 한 패널 "Cultural Representations of Urban Development: Marginalized Populations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in Colonial Korea and Postcolonial South Korea"에서 발표되었다. 세 분 외에도 UCLA 김민승 선생님, 동아시아학술원의 손성준 선생님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었다. 난삽함을 잡아준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 12.3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나날에 졸고를 읽어준 이승희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국문초록

이 글은 영화 「살인의 추억」(2003)과 드라마 「괴물」(2021)의 연쇄살인 서사를 저개발의 지리적 상상력을 드러낸 텍스트로 읽고자 했다. 실제 연쇄살인사건에 기반한 영화 「살인의 추억」(2003)이 만들어진 이래 연쇄살인은 한국 대중문화 텍스트의 매력적인 제재가 되어왔다. 살인의 추억 과 괴물 은 연쇄살인을 하층계급 남성성 위축을 여성혐오 폭력으로 상쇄하는 페미사이드이자 저개발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재현하여, 21세기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신도시 개발, 재개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위계화된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두 텍스트는 연쇄살인 사건의 지리적 배경을 시골 마을이나, 수도권 주변부의 낙후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아파트단지 개발 이슈를 이야기 속에 삽입하고 그곳을 섬뜩한 반자연과 저개발의 공간으로 공들여 보여준다. 이는 시골이나 도시의 주변부 지역을 잠재적 범죄의 공간으로 암시함으로써, 아파트단지로 체현된 중산층의 이성애 규범성과 공간화된 안전 감각을 고조시키고 아파트단지 개발이라는 한국사회의 보편화된 욕망을 자연화한다. 이 글은 이러한 대중문화텍스트에 의해 매개된 미디어적인 현실이기도 한 한국사회의 끊임없는 아파트단지개발이 다양한 지역과 공간, 환경에 대한 상상력을 고갈시키는 문화적 착취의 근본 배경임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국문핵심어: 「살인의 추억」, 드라마 「괴물」, 연쇄살인범, 하층계급 남성성, 저개발, 지리적 상상력, 자연, 아파트, 페미사이드

## 1 「살인의 추억」과 「괴물」이 맞붙은 시간과 장소

이 글은 연쇄살인사건을 제재로 삼은 영화 「살인의 추억」과 드라마 「괴물」을 젠더, 계급과 결부된 개발 또는 저개발의 상상력을 드러낸 텍스트로 독해하고자 한다.[1] 이 두 대중문화 텍스트는 개봉 시점으로 본다면 각각 2003년, 2021년으로

1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1996년부터 공연된 김광림 극작의 『날 보러 와요』를 바

이십 년의 간극이 있다. 이 글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을 원주민 출신인 형사와 서울에서 온 경찰대 출신 형사가 짝패가 되어 추적하는 내용이라는 유사점에 주목한 것만은 아니다. 이 글이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제2기 신도시 개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아파트 건설의 사회문화사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 「괴물」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다.[2]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괴물」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신자유주의를 키워드로 삼아 잔혹한 범죄에 사이코패스적 인물만이 아니라 다수가 연루되어 공모와 은폐가 구조화된 사회가 이웃의 얼굴을 한 친밀한 괴물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놓여 있었다면[3] 이 글은 이 드라마 「괴물」을 낳은 신자유주의의 물적, 상징적 토대로서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복합도농시와 재개발을 설정한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살인의 추억」이 기반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난 첫해인 1986년을 영화 속에 두드러지게 새기고 있다면[4], 드라마 「괴물」은 2000년 10월을 서

---

탕으로, 2002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2003년 개봉되어 500만 관객이 관람했다. 「괴물」은 심나연이 감독을 하고, 김수진이 극본을 쓴, 2021년 JTBC에서 16회 방영되었으며 넷플릭스에도 공개되었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괴물」은 작품상, 극본상, 주연배우인 신하균이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2 심나연 PD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인상 깊게 본 작품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 「괴물」이 재미와 사회적 메세지를 지닌 작품으로 기억되고, 또 한국만의 레트로한 정서를 가진 정통 스릴러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장르물로 큰 호명 '괴물' PD '시그널' '비밀의 숲' 보며 공부」, 『중앙일보』, 2021.4.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6684

3 이와 관련해서는, 문선영, 「권력으로서 악과 정의실현의 연대-드라마 「「괴물」」(jtbc)을 중심으로」, 『어문논집』제91권, 중앙어문학회, 2022.; 권양현, 「텔레비전드라마「「괴물」」(jtbc)의 서사 구조와 클로즈업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제9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3 참조. 한편 조문순은 괴물성을 장애와 결합시킨 인물-극중 강진묵,이창진-이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판명되는 이 드라마의 상징체계가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성을 고착, 강화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조문순, 「TV드라마 『괴물』에서 장애의 이용」, 『한국장애학』제8권 1호, 한국장애학회, 2023.

4 이 영화의 1980년대 세목들의 축조와 관련한 정치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천정환, 「80년대의 국가·몸·사회: 「살인의 추억」이 '추억'한 것」,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사적 시간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괴물」의 프롤로그에서 자막을 통해 명시한 이 시간은 「살인의 추억」이 제작되기 직전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1995년부터 화성은 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꾸준히 언급되었으며, 미니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5] 2000년 3월 경기도 화성군과 광주군은 도농복합시[6]로 승격되고, 같은 해 10월 건설교통부가 화성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신도시 개발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권의 기류 속에서 지난한 당정 협의 끝에 2000년 세밑에 화성신도시의 추진이 결정된다.[7] 이듬해인 2001년 4월 26일에 화성의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확정된다. 태안읍과 동탄면 일대 906만㎡에 주택 4만 가구를 지어 인구 12만 명의 도시를 건설하여, 2003년 말에는 분양, 그리고 2005년에 입주를 완료한다는 것이다.[8] 「살인의 추억」의 프롤로그가 가리킨 2003년은 아마도 제2기 신도시 개발 붐까지 가로질러 온 세월로 셈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드라마 「괴물」의 배경인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바로 신도시 개발이 성사된 도시를 하천과 갈대밭 건너편에 두고 있는 낙후한 마을로, 이웃 지역처럼 신도시 기대가 부풀던 곳으로, 드라마의 현재적 시간인 2020년의 그곳

5 1993년 8월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준농림지제도를 실시 시장, 군수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준농림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용인 기흥 준농림지가 삼성 등 대기업에 의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준농림제도 이후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 제도는 2003년 폐지된다. 이러한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은 난개발 논란과 함께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화성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땅값이 오르게 된다. 「신도시 4곳 추가 건설」, 『한겨레』, 1995.9.13.; 「수도권 8곳 택지 300만평 개발」,『서울신문』, 1997.2.28.; 「서해안 고속도 따라 열린 '미래'…땅값 평균 50%급등 여기는 '화성' 개발열기 뜨겁다」, 『경향신문』, 1997.7.15.

6 도농복합시는 1995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199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1995년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5.1.1.) (법률 제477호)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다. 1990년대에 총 45개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었고, 2000년대에는 경기도 화성과 광주를 포함 5개 지역이, 2010년대에는 총 4개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어 2020년 기준 총 54개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었다. 최아수, 「도농복합시 공간구조의 시공간 역동성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23, 45-55쪽 참조.

7 「화성 4만가구 건설 2003년 분양」, 『동아일보』, 2000.12.31.

8 「경기 화성 등 3곳 택지지구 지정」, 『한국경제』, 2001.4.26.

은 시간이 멈춘 곳이자 그러하기에 개발이 더 간절히 기대되는 곳, 투자의 손실을 만회하고 이익금이 회수되어야 할 곳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자면, 「살인의 추억」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지역과 관련해서 보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1980년대의 그곳만이 아닐 것이다. 「살인의 추억」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고 시체가 은닉되어 있는 산과 논, 언덕과 농수로 등은 여성화된, 낙후되고 지체된 공간으로, 1970-80년대 개발과 근대화의 질료이자 상징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레미콘 공장이나 깊고 직각인 계단을 지닌 취조실 등은 남성적 공간으로, 그리고 이 둘을 수평적 이미지와 수직적 이미지로 선명하게 대비시킨 김철의 주장[9]과 비슷한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10] 김수연은 1970, 80년대 수도권개발과 관련되어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설치된 반월과 안산 등 공단 도시들 사이에 위치한 화성의 1970-80년대 지역개발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살인의 추억」에서 "기괴한 형상의 '공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산물로 생활공간과 노동 공간의 분리를 통하여 농촌이라는 공동체 질서를 단절시킨"데서 내적 파열과 인물 간의 대립, 살인의 방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11] 한미라는 누가 범인인가, 왜 살인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범인을 잡지 못했는가에 중점을 둔 이 영화가 그려내고자 한 것은 198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이며, 내러티브의 주체 자체가 80년대라는 암흑의 시간으로, 목가적 풍경으로 시작된 이 영화의 공간이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공장이 들어서는 이질적 공간이 된다고 지적한다.[12]

---

9 김철, 「그녀를 죽인 것은 나였을까?」,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43-47쪽.

10 이승환, 「현대 도시공간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관한 연구-「살인의 추억」와 「극장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6권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김수연, 「근대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대중영화의 재현: 「살인의 추억」, 「괴물」을 중심으로」,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0.; 민경조,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통해서 본 봉준호 영화의 공간적 시대 반영성 연구」, 한양대 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한미라, 「봉준호 영화의 내러티브 공간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영화연구』 63호, 한국영화학회, 2015.

11 김수연, 앞의 논문, 38쪽.

12 한미라, 앞의 논문, 62-63쪽.

「살인의 추억」에서 근대화의 산물로서 레미콘 공장 등이 강조된 맥락은 그것이 시골 마을에 설치되었을 때의 인적·시공간적 이질성 때문이다. 즉, 레미콘 공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삶을 희구하게 만드는 시간 의식, 선망과 욕망의 가치체계로서 근대성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은 바는, 피사체가 된 레미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남성들 모두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는 거리가 먼 남성성을 체현한다는 것이다. 용의자인 남자들, 그리고 시골 형사들이야말로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의 성격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영화에서 용의자의 표상에 대해 이케우치 야스코는 형사들이 용의자를 여성화하고 이상화(異常化)하는 시선이 관객의 시선과 동일시· 권력화하여 변태성과 이상성을 축조해내고 있으며, 남성들 내부의 학벌과 교양의 차이도 겹쳐 있음을 주장한다.[13] 나는 주요 용의자들과 그들을 잡고 취조하던 농촌 마을의 형사들을 통해 하층계급의 남성들을 그려낸다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 시골 마을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인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수사 중인 주요 용의자의 특성을 중산층 이성애 규범성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하층계급 남성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여성 살해의 내러티브를 생성시키는 토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두만이 왜 형사를 그만두고 그곳을 떠났는가는 유명한 엔딩신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이 글은 80년대의 그곳이라기보다는 「살인의 추억」의 제작이 발표되고 개봉될 시점의 화성,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는 봉준호 감독 자신의 영화가 '농촌 스릴러'가 될 것 같다고 말하던 시점[14] 그리고 '화성연쇄살인범'의 진범이 밝혀진 오늘날로 끌어와 「살인의 추억」을 다시 감상하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 2 하선군 태령읍: 하층계급 남성성이 체현되는 곳

13 이케우치 야스코, 송태욱 옮김, 「『살인의 추억』의 '낯익고도 두려운, 치환된 삼각형'」,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102-103쪽.

14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 인터뷰/ 말하자면 '농촌스릴러"라 할까」, 『한겨레』, 2002.9.13.

「살인의 추억」은 한국에서 연쇄강간살인 사건을 다룬 첫 영화다. 이 영화가 모티브로 삼았던 실제 사건은 1986년에서부터 1991년까지 서울 인근의 지역이었던 경기도 화성군(1949-2000) 태안읍 2km 근방에서 10명의 여성 피해자를 낳은 강간・살인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살인자가 남긴 DNA를 근거로 1994년부터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2019년 9월에 특정되고 그가 자백할 때까지 미제사건이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인 목가적 풍경 장면을 찍은 곳은 어디었을까?[15] 전라도 장성에서 「살인의 추억」을 촬영 중임을 보도한 『무등일보』 기사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 픽션을 가미한 것이지만 화성에서 촬영되지 않는다. 10년 전과 풍경이 너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당시 사건을 악몽으로 여기고 있는 주민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16]

「살인의 추억」 이전에도 1997년 (주)시네마서비스가 이 사건의 영화화를 추진했을 때, 화성 주민들은 반대하였다. 피해자 가족들과 주민들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게 만든다는 이유였다.[17]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니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시점이고 땅값을 들썩이게 만들던 때다. 「살인의 추

15 제작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 전민성에 따르면, 「살인의 추억」은 2002년 8월 27일 크랭크인에 들어가 2003년 2월 11월에 크랭크업할 때까지 99회의 촬영횟수를 거치면서 전국 90여 곳을 로케이션으로 활용 촬영되었다고 한다. 전민성, 「살인의 추억: 홍보, 제작과 관련된 몇 가지 생각」,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215쪽.

16 「화성 연쇄살인 영화 장성서 촬영」, 『무등일보』, 2002.9.4.
https://www.mdilbo.com/detail/WaqYZZ/72221

17 「미궁 속 화성사건 영화화」, 『경인일보』, 1997.3.1. 그러나 이 소식은 즉각 화성군 주민들, 특히 태안읍주민들의 반발을 샀다.「연쇄살인 소재 영화제작 화성주민 "명예훼손"반발」, 『국민일보』,1997. 3.16 ; 「영화화 결사반대」, 『경인일보』, 1997.3.14. 순서대로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201.199703012024091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19970316170321002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201.19970314204340102

억」 또한 제작이 보도되자마자 화성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18] 화성시는 제작사인 싸이더스에 지역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해달라는 요구의 공문을 보냈으며, 싸이더스 측은 광고나 영화내용에 '화성'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19]

뉴스에 보도된 영화의 제작과 흥행은 화성이란 지역 이름을 꺼리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다. 아파트단지 건설을 중점으로 삼은 2기 신도시를 추진하던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를 "화성 신도시"라는 명칭 대신 "화성, 동탄 신도시"라고 사용할 것을 강조했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 분양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동탄 신도시"라는 명칭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으며,[20]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5건이 발생할 무렵이던 1987년 당시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태안읍 일대의 풍경(사진 위). 논밭이 대부분인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아래 사진은 22일 화성시 병점동에 들어선 아파트와 상가들. 병점동은 옛 태안읍의 일부다.

「살인의 추억은 잊어라, 개발 바람에 '화성벽해'」, 『조선일보』, 2019년 9월 23일 사진기사

18 「화성시민 "이미지 실추" 분노」, 『중부일보』, 2002.9.14. 「연쇄살인 영화화 화성시 전전긍긍」, 『문화일보』, 2002.9.24. 각각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01.20020923160506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020924000002904

19 「연쇄살인 영화화 화성시 전전긍긍」, 『문화일보』, 2002.9.24.

20 「토공'화성=연쇄살인' 이미지 벗기..신도시 명칭 화성·동탄으로」, 『한국경제』, 2003.1.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584412?sid=101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지자 2019년 9월 23일 자 조선일보는 「살인의 추억은 잊어라, 개발 바람에 '화성벽해'」[21]라는 제목에 "연쇄살인 벌어졌던 태안읍, 인근에 동탄 신도시 들어서 땅값 폭등/ 이춘재 일가도 수십억 재산…외지인 이주로 주민 구성도 바뀌어"라는 뉴스리드는 연쇄살인사건의 옛 명칭을 상기시키면서도 그 사건으로 더 이상 동탄 신도시에 어떤 흠도 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성벽해"라는 말로 화성은 그런 흉악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웅변하고자 했다. 이 기사는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현재를 대비하는 사진기사를 제시하였다.

「살인의 추억」의 제작과 개봉, 진범의 등장,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등을 계기로 「살인의 추억」이 이야기된다. 이렇듯, 영화를 통해서 다시 이슈가 된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역의 이미지 실추라는 토픽은 개발의 성공 여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경제적인 손해로 이어지리라는 우려가 내재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영화 자체가 개발된 현실과 상상의 도시 이미지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독해될 수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군을 하선으로, 태안읍을 태령읍으로 바꾸는 눈속임을 한다. 영화는 1986, 87년을 배경으로 연쇄살인이 발생한 이 지역을 시멘트 공장과 철로가 지나가고 가까운 역이 있지만 낮이나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들이 농수로, 추수를 할 무렵의 논과 야산 숲에서 사체로 발견될지도 모를 곳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와시타니 하나는 「편재하는 연쇄 살인범, 기억의 공동체」라는 논문에서 이 영화가 살해자의 개성에 공을 들인 서구와 여타의 연쇄살인 영화와 달리, 살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마침내는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농촌이라는 시공간 전체를 범죄와 트라우마의 괴물스런 혼합물로 변모시킨다"고 말한다.[22] 한편 김경현은 봉준호의 영화가 글로벌 대도시가 자연에 기생하여 생태적 조화를 파괴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그중 「살인의 추억」에서는 시멘트와 그밖의 건축 자재를 만들기 위해 파괴된 산과 피해자의

21 「살인의 추억은 잊어라, 개발 바람에 '화성 벽해'」, 『조선일보』, 2019.9.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0105.html

22 와시타니 하나, 조만영 옮김, 「편재하는 연쇄 살인범, 기억의 공동체」,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지음, 새물결, 77쪽.

질에 복숭아 조각을 넣는 연쇄살인범을 대응시키고,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처럼 목가적 풍경을 상기시키지만 박두만이 도랑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클로즈업되면서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으려는 사실주의적 영화의 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23] 「살인의 추억」이 목가적 농촌이나 자연이란 더 이상 불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의미라면 동의하지만, 훼손된 자연와 살해된 여성을 등치시키는 듯한 매끄러운 도식은 동의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오히려 「살인의 추억」은 여성들이 강간 살해를 당할지도 모를 지역적 또는 사회적 특성과 관련한 지리적 상상력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윤종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980-90년대를 풍미한 영화들의 한 양상을 들어 "비물질 자본을 결여한 '촌놈'들의 서울 투쟁기"[24]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장길수 감독의 「불의 나라」, 「물의 나라」와 같은 영화, 또 내가 보기에는

23 Kyung Hyun Kim, *Virtual Hallyu:Korean Cinema of the Global Er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38-40. 한편 데이비드 E. 제임스는 임권택 영화는 『춘향전』처럼 여성의 몸에 대한 사도마조히즘적인 접근이나, 신윤복 회화에서처럼 여성의 몸과 자연 풍광이라는 두 가지 모티브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봉건적 문화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티프를 현대의 상황에 맞게 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특히 한국 풍경의 이상화는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중층 결정된 경험을 지닌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농촌 사회를 휴양과 정신적 회생의 장소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다면, 문화 관광주의의 맥락에서 외국 관람객을 유혹하는데, 이는 자연 풍광의 매춘화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민족적 은유로 사용하는 임권택의 영화가 프롤레타리아 여성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데이비드 E. 제임스, 「한국 민족영화와 불교」, 『임권택, 민족영화 만들기』, 김경현·데이비드 E. 제임스 외 엮음, 김희진 옮김, 한울, 2005, 66쪽-68쪽 참조. 제임스의 논의에 기초해본다면, 봉준호의 여성들이 살해되어 사체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농촌 또는 시골 마을이란 여성과 자연의 착취가 극단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생각을 더 밀고 나갈 수는 없었다.

24 이윤종, 「7장 비물질 자본을 결여한 '촌놈'들의 서울 투쟁기」,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 kofic, 2024 370-405쪽. 한편 1990년대는 이성애 중산층 규범성의 미디어적 이미지로 소설, 광고, 드라마 등에서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로 유포되는 한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소외를 상쇄하려는 하층계급 남성의 이미지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어느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의 딜레마: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소고」, 『대중서사연구』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참조.

「서울의 달」과 같은 드라마에서 '촌놈'들에게 부여한 어떤 긍정성, 고향 시골에서 물려받은 인격적 특성이라 할 만한 순진성, 우직함 그리고 목가성이나 노스텔지어를 「살인의 추억」은 철저히 제거한다. 그러면서 드러내는 것은 지리적 위계와 함께 구축되는 하층계급 남성성이다.

"범죄와 트라우마의 괴물스런 혼합물"로 농촌을 제시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서울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규준으로 언급되어 있다. 박두만은 서태윤이 실종 신고만이 들어온 독고현순이 연쇄살인의 피해자일 것을 추론하자 "서울이 미국보다 넓냐"고 비난한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현순은 서울에 가서 윤락가에 빠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순의 사체가 발견되자 여성이 타락하는 곳인 서울이라는 설정은 무너지며, 두만이 살고 있던 곳이 오히려 상상치 못한 연쇄살인의 장소가 된다. 특히 피해자 안미선의 음부에서 복숭아 조각을 발견해 내는 검안 의사의 검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느 범죄와 다른 성격의 사건임을 깨달았다는 듯, 서울 시경 출신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자청하여 내려온 서태윤에게 묻는다. "근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자주 보나?" 서태윤은 "전혀"라고 대답한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서태윤과 2년제를 나온 박두만, 그리고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게다가 가족이 없는 조용구. 조용구의 학력 콤플렉스는 대학생들을 집단 섹스를 벌이는 부류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콤플렉스는 정부를 비판하는 여자대학생들에 대한 혐오로 표현된다. 그에게 서울은 대학을 졸업한 자가 "폼나는" 형사가 되고, 부유한 집 자식들이 데모를 하고, 교수나 돈 많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팔 것 같은 여자대학생들이 있는 곳이다. 세 형사 중 조용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폭력성은 학벌과 결합된 계급 콤플렉스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영화 전반에 나타나는 폭력성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의 전이이자 일상화라는 해석은 경청할 만하지만[25] 유독 여대생들을 매개해서 현시되는 조용구의 폭력성은 하층계급 남성의 콤플렉스를 젠더 위계적 폭력을 사용해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 지속되고 광범한 문화적 재현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열등감이 남성의 폭력성과 변태성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은 박두만에게

25 김철, 이케우치 야스코, 천정환의 앞의 글들 참조.

도 나타난다. 시골 마을의 젊은 여성이 바람들어 몸을 버리는 곳이 서울로 알고 있었던 박두만, 그리고 조용구는 고문에 의해 정신지체장애인 백광호를 진범으로 둔갑시키고자 한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백광호가 진술서 작성 시 해야 할 말을 박두만이 만들어 그에게 들려준다. 낮은 지능과 왜소한 신체, 화상 흉터가 있는 얼굴 때문에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광호로 하여금 여성 살해를 감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이처럼 언제까지나 부모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남성성을 위축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보복 강간이나 살인이 이미 개연성 있는 서사로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범행이 이루진 장소에서 여성의 붉은 팬티를 입고 자위행위를 하다 용의자가 된 레미콘 공장의 인부 조병순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단칸방에 병든 아내와 아이들이 파리떼 속에서 뒤엉켜 있는 장면으로 제시된다. 이 장면은 마치 어두운 밤 무덤가에서 이루어진, 조병순의 변태적 성욕 해소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호모섹슈얼한 이미지로도, 그리고 부드러운 손을 지닌 학출 노동자로도 보여 복합적인 표상으로 읽혔던 박현규 또한 하층계급의 남성이다. 박현규의 애청곡인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강인함과 연약함, 지혜로움과 어리숙함이 따져지는 세상 속에서 연인으로부터 거절당한 남자의 집착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읽히게 된다. 박현규가 FM 라디오 방송국에 보낸 엽서에서 자기 자신을 "태령읍에 사는 외로운 남자"로 소개한다. 벽 사이로 난 좁은 통로로 들어와야 하는 그의 셋방은 그의 상태이다.

「살인의 추억」, 「추격자」을 분석한 배은경에 따르면, 연쇄살인사건의 문화적 재현에서 "죽인 자"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심지어 예술적이기까지 한 인물로 나타나며, 이는 범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26] 좀더 진전시키자면, 피해자에게 남긴 잔혹한 폭력적 살해와 낙인의 표지들만이 아니라 살해의 동기를 추정케 만드는 하층계급 남성성의 재현이 페미사이드를 부추기는 여성혐오 담론을 공기처럼 자연화한다.

비 오는 날 남편이 퇴근할 무렵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간 안미선이 살해되고

26 배은경,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사회」, 『사회와 역사』 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137쪽.

용의자로 지목된 박현규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범행의 목격자로 다시 찾아나선 광호는 기차에 치여 죽고 조용구는 파상풍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다. 두만을 불러낸 설영은 낚시터로 쓰이고 있는 저수지 부근 들판에서 그에게 영양제를 맞혀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뭐 딴 거 할 거 없어?" "형사 그만두면 안 돼?" 형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시골 마을에서 떠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뒤이어 이 영화의 마지막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비 오는 날 저녁 소나무 숲길에서 설영과 스쳐 지나가던 중학생 소녀 소현이 살인범의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다. 범인이 더 약한 표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설영은 우연찮게 살아 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설영은 어디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 여관방이 그의 거주지였을까?



그림2「살인의 추억」설영은 두만에게 형사를 그만두면 안되냐고 물어본다.



그림3「살인의 추억」의 에필로그 "2003년" 남편 두만과 두 자녀가 아침 식사하고 있을 때, 설영은 I'PARK 전면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에서 집이라 할 만한 곳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별해 둘 필요가 있겠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거의 외부인에게 무방비 상태다. 무덤 앞에서 붉은 여성 팬티를 두고 변태 행위를 하려던 조병순을 쫓는 추격 신에서 형사들은 가로등도 없고 불을 켠 집도 거의 없어 빈집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 집들이 있는 골목으로 뛰어든다. 반쯤 열린 대문을 몸으로 밀치고 서태윤이 뛰어 들어와도 놀라지도 않은 채 집의 안주인인 듯한 여성 한 명과 소녀 둘이 마루에서 오순도순 부침개를 부쳐 먹고 있고, 마루 옆으로 문이 열린 방에서는 소현의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마당 밖을 보고 있다. 큰 황구 한 마리, 아직

강아지인 황구들 또한 짖지 않는다. 그곳은 이 영화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중학생 소현의 집이었고, 또 한 소녀는 하교를 함께 하는 단짝 친구였다. 소현은 반가운 듯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와 친구에게 방범 초소에서 보았던 경찰 아저씨라고 일러준다. 이러한 소현의 집 식구들이 문단속도 하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놀라지 않는 상태는 어쩌면 거의 모든 이들이 대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서 방문자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던 한국의 전통적인 농가의 생활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잔영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변소 괴담이 돌고 있던 안송여중 뒤편 언덕 위의 외딴집 사정은 보여준다. 살해를 당할뻔하다 도망친 피해 생존 여성이 사는 언덕 위의 집은 앞뒤로는 배추밭이 펼쳐져 있고 담도, 대문도 없는 집이다. 낡은 슬레이트가 얼기설기 얹혀 있는 지붕에 일자형 한옥식 구조이다. 죽지 않았기에 피해자로서 이름도 없이 나오는 여자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도록 늘어뜨린 채 툇마루에서 옷을 가위로 헤집듯 하다가 서태윤이 불쑥 들어와 한마디를 건네자 겁에 질려 허겁지겁 방안으로 피하여 문고리를 틀어쥔 채 문풍지에 뚫린 구멍 사이로 그에게 말한다. 누가 보면 안 되니 가라고 말이다. 그녀의 가려진 얼굴은 여경 권귀옥이 진술을 받으러 왔을 때 조금씩 드러나게 되지만, 일부러 자신이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듯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후 보복을 피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않는 것이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밤에 밭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여중생들의 소문을 좇는 것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피해 생존자는 집에서조차 불안해하고 있음을, 아니 집 자체가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영화가 점차 전개되면서 보여주는 것은 여성들이 길 위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하선군 태령읍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박두만이 허름한 여관방에서 자신의 성기가 애인 설영의 질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를 신경 쓰는 초반의 장면-살아 있는 여성과 정상적인(?) 섹스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면-은 “2003년”이라는 영화의 에필로그 타이틀에 이어진 장면과 관련해 독해될 필요가 있다. 3,40평대의 아파트일까? 그곳은 이성애 중산층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있는 집이다. 원목식탁, 원목 가죽 소파와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 거실, 식탁 위가 정돈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스트· 잼· 우유· 주스로 차려져 있다. 두만은 와이셔츠를, 남매인 아이들도 교복을 입

고 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 창가 소파 앞에서 서서 신문을 보고 있는 설영은 편안한 옷차림이다. 연쇄살인범의 마지막 표적이 되어버리기 직전 여중생과 엇갈린 운명의 무심한 안도감이 느껴지기조차 한다.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과 등교를 하고 나면 그녀는 집에 더없이 편하게 남아 있을 것 같다. 「살인의 추억」의 에필로그 "2003년"은 설영의 권유대로 두만이 설영과 결혼하여 제법 성공한 가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아파트는 하층계급을 배제한 중산층의 거주지로 확립되었으며, 여기에 경비와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스마트시스템 장치 등을 통해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안전, 개인주의적이고도 배타적인 사회성의 정동을 만들어냈다.[27] 아파트 씬은 두만이 중산층으로의 계급 이동에 성공했음을, 더 이상 여성 살해가 벌어지는 태령읍과 같은 곳에 살지 않음을 보여준다.

설영은 소파 앞에 서서 신문을 한 면 한 면 펼치다가 다 접은 후 제일 뒷면의 전면광고를 유심히 보며 식탁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설영이 본 것은 "청주 특별시 아이파크 분양"이라는 카피의 현대산업개발의 I'PARK 광고였다.[28] 특별시에 방점이 있는 이 광고는 아이파크가 청주를 서울처럼 만들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더 적확하게는 강남일 것이다. 대기업 건설사의 브랜드를 지닌 고급 아파트의 등장은 전국을 강남화의 욕망으로 요동치게 하였다.[29] 그들이 거

27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20, 223-251쪽. 관련하여 김항은 박정희 정권에 있어 아파트 설립이 쾌/불쾌, 위생/비위생을 과거와 여성에 투사시키는 공중위생학 담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매개체였다고 주장한다. 김항, 「육체 없는 국민의 건강과 혐오-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 비판」, 『상허학보』61호, 상허학회, 2023 참조.

28 1999년 2월 전면적인 분양가 자율화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2001년 3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 통합 브랜드이다. I'PARK의 I는 Innovation의 약사이다. 아파트 브랜드 중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외래어를 쓰는 경향이 컸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채완, 「아파트 이름의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 2권 1호, 사회언어학회, 2004.; 이현수·윤형건·김승현, 「신문광고 사례를 통해서 아파트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5권 2호, 한국광고학회, 2004.

29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동된 지리적 위계화와 강남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서대승, 「8장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의 의미 변화와 사회적 경계

주하는 아파트가 서울인지 아닌지, 몇 층인지는 몰라도, 긴 커튼을 드리운 거실 창 너머로 차가 지나가고 있다. 설영의 아파트 거실에서 훤하게 내려다보일 수도 있는 도로변이 있는 것이다. 그녀는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 3 문주시 만양읍: 저개발과 연쇄살인

드라마 「괴물」[30]의 프롤로그와 타이틀 신은 이 드라마가 여성연쇄살인과 개발 이슈를 결합한 이야기임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2003년 「살인의 추억」과 달리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가상의 도시로 CCTV도 제대로 없는 낙후된 소도시와 방치된 수풀인지 농지인지 모를 미개발의 땅을 끼고 있는 한 마을의 재개발에 대한 욕망과 낙담, 불신으로 뒤엉킨 한국적인 서사를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이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기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이 "경기서부지청"[31]에 이관되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서부에 있는 도시로 상상된다.

드라마는 만양 파출소의 순경 오지훈과 이동식이 밤의 어둠 속에서도 짙푸른 문주천 갈대밭에서 열 손가락의 첫 마디가 잘려진 채 두 손을 포개 모은 백골 사체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하여, 2000년 10월 14일 자막과 함께 시작된 프롤로그는 문주천 옆으로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지나 또 갈대밭 옆 도로를 달려 만양읍으로 들어서는 밴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살인의 추억」의 오프닝을 연상시키지만, 드라마는 신도시 개발 이슈를 도입부터 가시화한다. 만양읍 삼거리에 1, 2층의 낡은 건물들과 빛바랜 간판의 가게들이 있고, 현수막이 달려 있다. "축 환

---

형성」,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박배균 외, 동녘, 2017, 318-354쪽.

30 2021년 JTBC 방영 후, NETFLIX에 공개되었지만, 현재 TIVING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김수진 작가가 펴낸 대본집을 참조할 수 있다. 김수진, 『김수진 대본집 괴물』1,2,3, 북로그컴퍼니, 2021.이 글에서는 대사 인용의 경우, TIVING에서 제공된 무삭제판 드라마를 참조하였다.

31 경기도에 있는 지방검찰청에 경기서부지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 일암 ITcity 개발 계획 확정!" "경축! 일암까지 10분. 문주시 그린벨트 해제" "문주 택지 개발 지구 확장하라!" 등등. 문주시 만양읍은 인근 일암처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다.[32] 그 기대는 욕망을 매개하는 중개자가 서울도 아닌 더 가까운 곳,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인 일암동이었기 때문에 더 맹렬한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

성당 앞마당에 밴을 주차시킨 진묵은 꽃바구니를 내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 유연이 오르간을 치고 성가대가 성가 연습을 하고 있다. 예배당 꽃장식을 준비하는 중년의 여성들 중에는 유연의 엄마도 있다. 유연의 돌아가신 외할머니 연미사인데도 동식이 보이지 않는다. 한 여성 교인이 유연 엄마에게 서울대 법대 재학생인 유연을 칭찬하고, 그녀와 달리 공부에 관심이 없는 쌍둥이 오빠 동식을 비난한다. 동식은 그 시간 만양 라이브 카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카페 종업원 방주선은 동식에게 그만 가달라고 소리친다. 그녀도 쌍둥이 여동생보다 못난 동식을 비웃는다. 그날 밤 유연은 귀가하지 않는 오빠 동식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에게서 문자가 와서 조용히 집을 나선다. 갈대밭 옆길을 걷는 유연이 보이다가 한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 날 새벽 유연의 엄마는 마당의 돌 선반 위에서는 봉숭아 물을 들인 손 첫마디 열 개가 가지런히 놓아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갈대밭에 발목이 붉은 리본으로 묶인 방주선의 시신을 비추다가 갈대밭 저 먼 곳에는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세운 도시가 들어섰음을 보여주며 타이틀 '괴물'이 제시된다. 타이틀 신은 줄레조가 "택지가 농지를 밀어냈다"고 규정한 신도시 개발과 그것을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33] 「괴물」은 건너 일주동이 고층 아파트단지로 변신을 해갈 동안 여전히 그대로인 갈대숲, 그 속에 잠긴 여성 변사체는 만양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준다.

---

32 문주시 만양읍이라는 지명자체가 이 도시가 도농복합도시를 모델로 한 도시임을 알려준다. 도농복합도시에서 행정구역의 표기는 농촌부문은 읍으로, 도시부문은 동으로 칭한다.

33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20, 49쪽. 인용된 곳에서 언급한 신도시는 분당이다.




그림 5「괴물」1회, 프롤로그




그림 6「괴물」1회 타이틀 신

드라마의 1회에서 현재 경찰청 차장 한기환의 아들이자 경찰대를 수석 입학하고 졸업한 젊은 경위 한주원이 문주시 교차로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들어올 때 보이는 현수막들은 20년 전처럼 그곳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곳은 여전히 낙후된, 재개발이 기대되는 곳이다. 서울의 광수대와 외사에서 근무하던 엘리트 경위 한주원이 만양 파출소에 자원하여 온 이유는 그가 인지한 세 건의 백골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 살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함이다. 강원도에선 위순희, 경기에서는 여춘옥, 부산에서는 진화림이란 여성이 기도하는 손모양을 한 채였는데, 모두 첫 손마디가 잘려있었다. 한주원은 이 사건들과 21년 전 만양에서의 방주선 살인, 여대생 이유연 실종 사건이 동일 범죄자에 의한 연쇄살인이라고 추정한다.[34] 동식은 서울 광수대 소속 경위였다가 그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부하 형사의 죽음으로 1회의 첫 부분에서 지훈과 동식이 백골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 옆에는 한주원도 있었던 것이다. 동식은 사체를 보자마자 여동생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 한주원에게 이는 의아스럽고 가증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동식을 용의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문주천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되자 동식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35]

게다가 동식이 형이라 부르는 사람으로, 그의 부모가 어릴 적부터 돌봐온 고아 강진묵이 혼자 키워온 딸 민정의 손가락 첫 마디 열 개가 만양 슈퍼 앞 평상에

34 이러한 사실은 2회 주원이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초고층 오피스텔에서 벽장을 열자 화이트보드에 붙여진 사진과 적어 놓은 사진 설명에서 확인된다.

35 이 사체의 신원은 이금화로, 한주원이 연쇄살인사건을 쫓기 위해 정보원으로 심어놓은 중국 동포 여성이었다.

서 발견된다.[36] 그 이후 3-5회에서 동식은 용의자로 의심받는다. 마을 주민들은 동식에게 이런 비난을 가한다.

> "너 왜 자꾸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여! 20년 전에도 사람 죽여 갖고, 개발 들어갈 걸 망쳐놓드니! 니놈이 망가뜨려 놓은 마을에, 아파트 좀 짓겠다는데 또 사람을 헤쳐? 대체 뭔 빽으로 유치장서 자꾸 기어 나오는겨?너 땜에 땅값 떨어지면 책임질겨?"(4회)

> "옆 동네는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 "저쪽은 경찰서며 파출소가 줄줄이 들어서는데, 우린 언제까지 CCTV도 없이 살아야 되냐고!" (5회)

주민들은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에 대한 전율과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재산 증식을 방해물로 느끼는 심리만을 표출한다. 나중에 "만양 골목"에서 사체들이 수어구 발견될 때조차도 그들의 탄식은 폭력과 죽음에 있지 않고 집값과 땅값의 폭락에 있다. 동식에 대한 비난도 순전히 그런 차원이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적 조건으로 만양의 주민들은 CCTV도 부족하고 그린벨트도 많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CCTV의 부재나 망가진 CCTV는 이 드라마에 없어선 안 될 장치이다. 전반부에 CCTV는 위의 인용문처럼 마을의 낙후성을 강조하는 후렴구처럼 나올 정도이다. "재개발 지역에 CCTV는 얼어죽을."(1회), "아무리 저게(CCTV) 깡통이래도, 경찰이 이 앞에다 주차하면 안 되죠."(1회) "이쪽 비추는 CCTV는 아예 없고, 이 근처도 작동하는 게 거의 없을 거라는 데요?", "CCTV, 우리 만양읍 주택가도 턱없이 부족한데, 갈대밭까지는 못 깔죠."(2회) 등 20년 전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CCTV가 없는, 개발이 필요한 재개발 동네라는 것이 배음처럼 깔려 있다. 여기서 신도시 건설과 함께 CCTV 설치는 화성시가 2006년부터 연쇄살인사건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36 열쇠고리를 경찰서에 두고 간 민정을 만나러 갔다가 동식은 잘려진 손가락들을 발견하고, 집을 뒤지지만 민정을 발견하지 못한다. 동식은 진묵을 범인으로 잡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목표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만들기였으며 전국에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한 도시가 되었다고 보도된다.[37]

동식이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오랜 친구들, 경찰인 사람들 사이에서 번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공부를 여동생처럼 잘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여기저기서 들은 쌍동이 오빠가 여동생과 카페 종업원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분노와 열패감이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의심이다. 과거 동식의 아버지마저 아들의 무혐의를 믿지 못하고 또 딸 유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 밖을 배회하다 동사하여 죽고, 어머니는 병상에 눕게 된다. 이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콤플렉스 때문에 여성에 살의를 표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서사의 일반화는 그 자체로 여성혐오 담론을 남성성의 위축이라는 테마로 전도시켜 활용한 것이다.

동식과 주원의 친 함정 수사에 낚여 민정의 살해범으로 체포된 강진묵이 자신의 여성 살해를 진술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강진묵의 과거 살해 상황이 제시되어 시청자는 알 수 있지만, 진술을 받고 있는 경찰 주원과 동식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너무 많았어. 시끄러운 년,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8회)라고 말한다. 민정을 죽인 날의 플래시백이 제시된다. 그가 하는 진술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물어도 답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해한 모든 여성들을 뭉뚱그린 특징이기도 했다. 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콤플렉스를 들춰내는 여성들을 살해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법적 담론으로 스테레오타입화 되어있는 "남성의 살인 충동을 도발하는 여성"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38] 진묵은 피해자 여성에 남긴 시그니처인 기도하는 모양의 손 모양을 하며 말한다. "그 여자들 회개했겠지?", "내가 종교는 없지만 말야. 죽기 전에 죄를 뉘우쳐야 하는 거잖아"라고 말한다. "잔소리꾼"이자

37 다음 기사를 참조. 「화성시 20년 전쟁, 더 이상 살인의 추억은 없다」, 『월간중앙』 2015, 06호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494: 「화성 시민들 "살인 도시 오명 벗어" "또 거론돼 불편"」, 『경향신문』, 2019.09.19.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1909192142005

38 수 리즈, 전경훈 옮김, 「잔소리꾼, 창녀, 여성해방론자: 남성의 살인 충동을 도발하는 여성」, 『페미사이드』, 다이애나 E.H.러셀·질 레드퍼드, 책세상, 2020, 510-552쪽 참조.

“창녀”들인 그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소리를 하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여겨 죽인다.

그가 죽인 여성들은 딸 민정의 엄마 윤미혜와 관련된 여성들이었다. 한주원의 정보원이었던 이금화는 6년 전 부산의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당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단속에 함께 걸린 사람이 진화림, 위순희, 여춘옥, 이금화, 그리고 민정의 엄마 윤미혜였다. 진묵은 미혜의 “몸값”을 갚아주었고 또 자신과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런 그녀가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버린 것이다. 윤미혜에 대한 집착은 진묵의 정상적 가족구성에 대한 집착, 달리 말하자면 재화와 노력이 투여된 여성들에 대한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민정만은 자신의 딸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미혜를 없애야 했다.

그는 윤미혜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면서 만나게 된 여성들을 죽여왔다. 자신을 비난하며 도발을 하거나 미혜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였다. 작중 첫 살인 대상이 2000년 10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의 방주선이었다. 데이트를 마치고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주선은 미혜를 찾는 진묵을 한심해하며 미혜와 진묵의 엄마를 비난한다. “(미혜가) 대학 중퇴하고 알바하다 널 만나? 걔 술집에서 몸 팔았잖아. 니네 엄마처럼.”(8회) 진묵은 삿대질하며 말하던 주선을 죽인다.

주선의 말에서 밝혀지는 진묵의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는 주변 여성들의 품행을 징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심주산 산길에서 홀로 한정임을 죽이면서 진묵은 이렇게 말한다. “몸 팔고 다닌단 소문, 사실인가 봐. 야밤에, 예쁘게 단장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8회) 진묵의 마지막 살인이 민정이었다. 민정을 죽인 날은 미혜가 죽었음을 부산 “면서항” 부근의 “방석집” 마리아에서 확인하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진묵은 민정의 품행을 단속해왔지만 민정은 집에 진묵과 함께 있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음이 드러난다. 진묵은 민정이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을 타박하고 대중목욕탕에 가려는 딸을 만류하며 팔을 잡는다. 몸서리치며 민정은 소름끼친다고 말한다. 민정은 “그래 너무 싫어. 덜 떨어진 척, 사람들 비위나 맞추면서 속이고 살지. 근데 나는 알아. 음침한 눈. 그거 난 안다고!”, “그 여자가 왜 도망갔는지 완전히 이해된다니까!”(8회)라고 말한다. 그는 딸 민

정이 자신보다 동식, 지훈, 정제 등 다른 남성들에게는 친밀하고 다정하게 구는 걸 알고 있었으며, 정제와 팔짱을 끼는 것도 훔쳐보았다. 급기야 그날따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말에 도발하여 손가락을 자른 뒤 산 채로 항아리에 넣은 뒤 마당에 파묻어 민정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39] 그를 도발한 트리거는 여성들의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손가락질이었다. 여성들의 손가락질 제스처의 의도적이라 할 만큼 반복적인 클로즈업은 드라마의 제작 이전 미러링를 통해 반여성혐오 담론의 특유한 양식을 창출한 메갈리안의 손 모양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메갈리아의 손 모양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지만, 남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 진묵에게 여자들의 손가락질은 그들의 발화와 함께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적 언어의 신체화된 상징인 것이다.

작중에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여 년의 세월 속에 펼쳐진 진묵의 연쇄살인은 최근 여성 폭력, 살해를 여성의 품행 탓으로 돌리는 여성혐오 담론 등의 사회문화적 흐름, 그리고 기존의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시그니처과 관련해서는 이춘재를, 주요 살해 대상을 누구로 삼았는가와 관련해서는 유영철을 상기시킨다. 유영철은 2003-4년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잡힌 그는 초반에는 부유층 노인들을 살해했지만, 성매매 알선업소와 출장 마사지 여성 11명을 포함 총 20명을 살해한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널리 쓰이게 한 유영철은 사체를 토막 내어 서대문구 봉원사 인근 야산에 묻는다. 유영철의 여성 살해는 이혼한 아내에 대한 증오에서 촉발된 것으로, 그 스스로 몸을 함부로 굴린 여성에 대한 경고였다고 그 동기를 밝혔다.

이 드라마에서는 범죄 무대인 만양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인정이나 관계성이 남아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모두 자신의 고향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동식, 정제, 지화, 지화의 동생 지훈 그리고 만양정육점의 재이와 함께 삶을 나누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묵의 딸 민정, 그리고 진묵에 대해 지훈은 주원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단순히 동네 슈퍼집 딸

39 진묵에게 있어 미혜의 죽음을 확인하고 민정을 죽음에 이르게 한 궁극적인 이유는 민정이가 진묵의 칫솔을 챙겨서 친자확인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민정을 죽이고 실종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민정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 지배권을 지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은 아니라가지구. 진묵 형이 고아였는데 동식이 형 부모님이 진묵 형을 아들 키우다시피 그러셨거든요.” “저 슈퍼 자리도 형 부모님이 알아봐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는 사람들과 눈도 못 맞출 정도로 순하고, 20년 전에 떠난 미혜를 찾아다닐 정도로 순정파로 설명된다. 동식은 그의 딸 민정의 아빠 엄마 몫 반을 할 정도로 동식과는 친동기간과 같다. 나중에는 연기인 것으로 밝혀지지만, 진묵은 자신의 어눌한 말투와 타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 굼뜬 몸짓으로 무해함을 가장하며 마을의 이런저런 궂은일을 해주며 살아왔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으로 표출해왔던 것이다.

그가 여성들을 죽이고 암매장한 장소가 만양이라는 것에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방주선의 경우 문주천의 갈대밭 옆 어두운 밤 도로변이거나, 남편의 49재 기도를 다녀오다 죽임을 당한 한정임의 경우는 심주산 인근 산길이었다. 이금화가 죽임을 당한 “만양 읍내 골목 일각”은 “재개발로 폐가 같은 빈집만 늘어서 있는 골목”[40]이다. 그리고 산기슭을 면한 곳이기도 하다. 흰 벽에 “철거”라고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는 이곳은 재개발이 예정되었지만 철거가 되지 않은 채-즉 개발이 지연된 채 방치된 곳이다. 강진묵이 낮인데도 자신의 탑차안에서 여성을 죽일 만큼 인적이 없는 곳이다.

다만 강진묵이 동식의 동생 유연과 재이의 엄마 한정임은 각각 그들의 집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동식이 지내는 지하 거실 벽에 유연은 매장되어 있었으며, 정임은 딸 재이가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집 뒷마당에 매장되어 있었다. 강진묵은 친절한 이웃의 가족들인 여성에게, 또 자신의 딸이라 믿기 위해 죽인 민정에게는 집이라는 무덤을 선사한 것이다. 그들과의 오랜 관계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겠지만, 불법체류자이자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기되다시피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진묵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규범성을 매장 장소를 구별짓는 방식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외에 강진묵이 사체를 묻은 곳인 “만양읍내골목 일각”은 재개발로 빈집이 즐비한 동네로, 그곳에 경찰들과 과학수사대가 오자 집주인이던 사람들이

40 김수진, 앞의 책, 397쪽.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 경찰들에게 “저기 우리 집인데”라고, 또 “강진묵 그 미친 새끼 어디 있어?”라고 아우성들이다. 그들은 강진묵을 알고 있다는 듯 말한 것이다. 만양 파출소의 황광영 경위는 폴리스라인을 지키고 있던 동료 조일구에게 말한다. “강진묵이 머슴이냐. 적당히 부려 먹지. 돈 한 푼 안 주면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제 집값은 폭망이다.” 조길구는 “황 경위님, 입 좀 닫죠? 돌팔매 당해요. 아휴 집값 때문에 미치겠구만.”(8회) 작가의 대본집에는 황광영의 대사에 “(집주인들 보며) 개발된다니까 폐가로 남겨두고 지들은 따뜻한 데 가서 살면서”(8회)라는 구절이 앞에 덧붙여져 있다. 진묵이 집 주인들에게 머슴 대접을 받는 수모를 겪는 대가로 빈집 관리를 도맡으면서 범행과 시체은닉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물론 그는 자신의 탑차를 사용하여 미혜의 뒤를 추적하며 경기·강원·부산 등지에서 야산, 폐허와 허름한 동네의 으슥한 곳에 유기한다. 얼핏 시체가 버려진 곳들은 만양과 어느 석은 닮은 곳으로, 개발의 그늘이자, 배후지, 낙후지, 저개발의 후미진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개발은 언제나 불균등하고 후보지를 생성하는 지리적 위계화를 통해 가동되기 때문이다.[41]

흥미로운 것은 이 드라마가 8회 마지막 부분에서 파헤쳐진 폐허에서 발굴된 시체가 몇 구이며, 신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도, 동식의 집 마당에서도 동생 유연의 시체는 나오지 않는다. 9회에서 16회까지 집중되는 것은 CCTV가 꺼진 유치장에서 일어난 강진묵의 자살, 동식네 지하실 벽에서

41 그덕에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추격자」(2008)에서 나홍진 감독은 범인이 여성을 살해하고 파묻은 대저택과 허름한 집들이 즐비한 가파른 골목길이 공존하는, “빈부 격차가 심한” “망원동”을 평창동·성북동· 북아현동·약수동을 이어붙여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여하튼, 이 영화는 망원동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다. 양형석, 「망원동 치안 걱정하게 했던 천재 감독의 데뷔작」, 『오마이뉴스』, 2024.4.20. http://star.o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 「‘추격자’ 나홍진 감독 “살인장소 망원동 구청서 항의 들어와”」, 『뉴스엔』, 2009.10.5.; 「 영화 속 무대가 망원동? 실제론 성북동·북아현동·성북동」, 『조선일보』, 2008.3.22.; 「 〈추격자〉, 나홍진 감독 “망원들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일간스포츠』, 2008.3.3. 순서대로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1006184954100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1/2008032101078.html
https://v.daum.net/v/20080303101119235



「괴물」 8회,강진묵이 이금화를 살해한 곳. “만양 읍내 골목 일각”. 이금화의 사체는 문주천 갈대밭에 버려진다.



「괴물」 8회. “문주시만양읍내골목일각” 재개발로 빈 집들이 있는 곳. 경찰들은 강진묵이 시체를 암매장한 곳을 수색하고 있다.

나온 유연의 사인과 진범을 파헤치는 과정이다. 21년 전 만양에서 제법 살던 집안의 딸이자 여대생의 실종과 죽음, 시신의 행방을 두고 벌어진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반을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만양의 상류층의 음모가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은 셈 되지 못한 채 무더기로 취급된 피해자들에 비하자면 불균등한 서사의 분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연의 죽음에는 진묵만이 아니라 상류층의 문주시 개발을 통한 치부와 성공, 계급 재생산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부를 취득하려는 자들의 조력과 공모관계가 집결되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폭력과 살해, 범죄가 어떻게 개발을 통한 자본 증식에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2000년 10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문주시 갈대밭 인근 도로에서 강진묵이 방주선을 죽이고 시체를 자신의 탑차에 싣는 것을 목격한 유연은 강진묵에게 손가락 한 마디씩 잘린 채 도망쳐 자동차 불빛에 안도하며 그 차를 세우려 했지만 치이고 만다. 한주원의 아버지이자 당시 문주경찰서장이던 한기환이 음주 운전한 차였다. 경찰청장을 꿈꾸며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될 처가를 두기 위해 오일건설의 딸과 결혼한 한기환은 그날 진리건업의 이창진, 동식의 친구 박정제의 엄마로 학교법인 광효학원의 재단 이사장으로 상당한 토지의 소유자로 문주 개발을 추진하여 정계로 진출하고자 한 도해원이 불러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다. 문주 개발은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시행사인 진리건업 사장 이창진은 문주경찰서장의 묵인하에 알박기를 한 지주들을 처리하여 땅을 매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기환의 처가인 오일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기로 암약이 되어있던 상황이었다. 한기환은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창진과 어울리고 싶어 하

지 않았지만, 아직 시공사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강권하는 술을 하는 수 없이 마시게 된다. 그렇게 도로에 쓰러져 있는 유연을 해연의 아들이자 동식의 절친 정제의 차가 다시 친다.

유연은 그날 밤 오빠 동식 몰래 비밀 연애 중이던 정제가 자신을 불러내 사슴농장 앞에서 만난다. 사슴농장은 정제네 것이다. 그날 사슴농장 오두막에서 동식과 기타를 치며 놀고, 술을 마시고 취한 정제는 동식의 기타 피크를 보여주며 동식이 오두막에 있음을 알리고, 곧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자신들의 연애를 동식에게 밝히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유연은 술을 마시고 엄마 도해원 모르게 자신에게 연락한 정제를 나무라고 혼자 길을 걷는다. 그러다 강진묵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다 손가락을 잘리고, 그가 방주선의 사체를 갈대숲에 유기하는 사이 도망치다가 한기환의 차에, 그리고 술과 약에 취한 채 몽롱한 상태에서 유연을 걱정하며 차를 끌고 나온 정제가 그녀를 또 친 것이다. 정제는 엄마 도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슴을 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 기억을 억눌러놓는다. 그날 밤 한기환과 도해원이 따로따로 이창진에게 유연의 뒤처리를 맡긴다. 도해원은 아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 개발 무산돼"(13회)기 때문이다. 두 번의 뺑소니 사고와 그사이에 어떤 이들이 오갔는가의 과정을 강진묵은 목격하게 된다. 이창진이 이유연을 자신의 차에 싣고, 정제가 몰고 온 차를 갖다 두러 간 사이 강진묵은 유연의 시체를 빼돌리고[42], 그 현장에서 정제가 흘린, 동식의 것인 기타 피크를 주워 그것을 방주선의 시체 옆에 갖다 두고, 유연의 첫 마디 손가락 열 개는 동식의 집 담벼락을 장식하는 석단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것이다.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연루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범행을 했는지를 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연의 죽음을 실종으로 둔갑시킨 사람들의 공모 속에서 동식을 방주선 살해의 용의자로, 동생 유연의 시체 없는 살인자로 만든다. 문주경찰서 정철문·조길구 등 경찰들로 하여금 증거를 조작하게 만들고, 한기환은 유연 사건을 조기 종료한다. 사슴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땅의 지주이던 박정제 집안

42 강진묵은 유연의 시체를 동식이 집을 떠나 있던 사이 동식의 엄마를 돌보면서 보일러 공사를 한다며, 지하실 시멘트 벽에 매장한다.

의 땅은 도해원을 통해 이들 공범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이창진이 이유연을 처리한 줄 알고 그에게 노른자 땅에 있는 빌라와 사슴농장 명의를 내어주고, 관리만 하고 있던 도해원을 협박해서 진묵은 열쇠를 얻어 그곳에 살해한 여성들을 처리하고 그 인근에 묻어왔던 것이다. 1회의 프롤로그에 제시된 2000년 방주선 살해와 이유연 실종 사건으로 신도시 개발은 무산된 것으로 설정되지만, 만양의 땅을 소유하게 되어 개발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은밀한 공범자들에 의해 개발에의 기대와 욕망은 더 부추겨진다. 이유연 사건을 덮는 데 증거조작과 인멸에 일조한 경찰 조길구가 그러하며, 증거인멸과 강진묵의 자살 교사 내지 살해를 방조하도록 CCTV를 꺼둔 체하고 녹화 클립을 보관해온 정철문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 20년 동안 한몫 챙겨왔으며, 한기환은 그의 비위를 덮어 줘왔다. 도해원은 "1999년부터 주변(문주서 인근 노른자 땅)을 야금야금 매수하고 20년간 3분의 2 정도"(12회)를 공모자들에게 넘겼던 것이다. 그리고 강진묵 자살과 유연 죽음의 진실에 접근해가던 만양 파출소장 남상배도 살해당하고, 이들 죽음에 이창진과 한기환의 커넥션이 놓여 있음을 틀어쥐고 있던 정철문도 살해당한다. 한주원은 자신의 아버지와 이창진을 도청하여 그 둘을 잡는다. 이들과 박정제와 도해원, 조길구 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문주시 드림타운 개발 대책위원회"의 대표 이창진, 그리고 문주시의 토착지주 도해원을 중심으로 한 20여년 간의 개발 살인 커넥션은 이로써 깨지게 된다.

서로의 범죄를 알면서 묵인하고 개발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연쇄살인범 진묵까지 공범자였던 이들 커넥션은 자본 확충을 위해 살해와 폭력을 일삼고 그것을 방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수단으로 삼았다. 그 중심적인 행위자에는 주변적 남성성을 폭력과 자본을 통해 마초화한 이창진과 같은 인물이 놓여 있다. 강진묵이 자신의 취약한 남성성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을 살해해 왔다면, 이창진은 개발을 위해 그 살해를 비가시화하거나 은폐하는 공모에 가담했으며 또한 자본-권력과 경찰 권력과 결탁하여 폭력과 살인을 자본 증식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동네 주민들이 페미사이드를 오로지 자본 합리성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인식론은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시신 정치를 용인할 수 있는 인식에서 멀지 않다는 점에서, 만양에서 벌어진 일들은 발렌시아가 명명한 고어 자본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43] 그러하기에 징후적이다. 즉, 이들의 범죄가 발

각되어 법적 심판대에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만양이 어떤 곳인가라는 물음을 지울 수 없다.

드라마 최종회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다. 지화와 지훈, 만양의 경찰들 그리고 동식과 강원도 여청과 실종팀에서 일하는 주원이 재이의 만양 정육점에 모여 남상배 소장의 기일을 기념한다. 그런 후 장면이 바뀌어 호수와 숲 사이에 가로놓인 산책로를 걷다가 주원이 동식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떠나가는 모습이 줌아웃된다. 호수와 가지들 사이로 하늘이 비치는, 아직 겨울이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봄이 올 것처럼 부드러워진 나뭇가지들 사이로 하늘빛이 비치는 산등성이의 라인이 부드럽게 펼쳐진다. 어둡고 음산한 갈대밭, 폐허가 되어버린 재개발 예정지, 낡고 닳은 집도 보이지 않는 그곳도 문주시 만양 어느 곳일까? 그곳에는 살해된 여성의 시체가 없을까? 그곳에는 재개발과 아파트를 외치는 코러스는 들리지 않을까?

## 4 APT, 저개발, 페미사이드

「괴물」의 문주시 만양이란 곳은 우거진 갈대밭을 사이에 두고 저편에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불빛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저개발의 공간이다. 맑은 하천의 물소리, 새소리, 갈대 바람은 누군가를 뒤쫓는 범죄자의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 수 있으며, 그린벨트와 경계를 이루며 형성된 마을은 그렇다면 신도시나 뉴타운이 계획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개발에 의해서 착취당한 상상력일 것이다. 다른 한편, 「살인의 추억」에서 「괴물」까지, 21세기 20여 년의

43 발렌시아는 멕시코 티후아나를 사례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속화된 폭력의 전지구화, 미디어를 매개로한 제1세계로부터 전파되는 소비주의와 그 스펙타클화, 복지국가를 대체한 경찰국가의 등장 속에서 잔혹하면서도 장식적인 폭력과 시신정치가 권력과 자본의 획득은 물론 치안 등 통치성을 대체한 상황을 고어 자본주의로 명명한다. 남성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야크 발렌시아, 최이슬기 옮김, 『고어 자본주의』, 워크룸, 2023, 147-180쪽 참조. 이 책에 대한 맥락적 해설과 분석은 다음 황미선, 「죽음 정치와 폭력의 지형학: 멕시코의 프론테라노르테와 사약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 담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32권 1호,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1,79-97쪽 참조.

세월이란 이웃과 친구들, 그냥 보통 사람들일 뿐인 사람들까지도 친밀한 관계의 여성이건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건 여성을 살해할 수 있는 더 일상적이고 더 평범한 이유들이 적립되고 살해가 이루어진 페미사이드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연쇄살인 이야기가 풍미하던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괴물」에서 민정을 살해한 진묵이 잡히고 연쇄살인 수사가 문주서에서 진행된다고 하자 이창진은 "이번 사건 여기저기 성매매 불법 체류 언니들하고 엮여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청 광수대랑 외사과에서 퍼 가려고 난리부르스! 퍼 가면 우린 좋잖아? 연쇄살인의 배경이 문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면?"이라고 묻자 도해원은 "개발은 문제없네!"하고 반색한다.(8회) 이들의 대화는 전국적으로 여성 살해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개발은 문제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한국사회는 개발도 기본값이 되어있지만, 여성 혐오에 의한 여성 살해도 기본값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 둘의 결합은 우연일 것일까? 미제인 여성살해사건과 실종 사건으로 재개발이 20여 년 지연되었다는 문주시 만양읍의 이야기는, 10건의 연쇄살인이 발생한 화성이 "화성벽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도시키는 지리적인 상상력의 소산이다. 신도시 건설에 의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들이 사라진 개발의 역사를 전도시킨 것이다. 그런 장소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자면, 그런 범죄가 발생할 법한 지역 내지 지리적 특성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상상력의 성립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과 드라마 「괴물」은 저개발의 주변부를 남성들 간의 계급적 지리적 분할선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여성들의 불안, 살해에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범죄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여성 사체를 땅에 유기하거나 폐가에 매장하는 이 텍스트들의 페미사이드는 그야말로 계급적 분할로 위계화된 지리적 상상력을 정확하게 부동산 서사로 합류시킨다. 그리하여 이 텍스트들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스, 신도시에 이성애 중산층 규범성이라는 상징체계를 요새처럼 확립시키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같은 서울의 강남/강북만이 아니라 같은 구나 동에서조차 촘촘한 단위로 위계화된 지역 간의 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부추겨지는 재개발과 아파트 부동산에의 집단적 욕망을 추산해서 이 텍스트들을 분석한 소이이기도 하다.

뜻밖에도 2024년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가 전지구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를 둘러싼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에서도 불려졌다. 아파트를 수십 번 외치는 도입부는 한국의 술놀이 게임인 아파트 게임의 구호를 따온 것이라고 한다. 여럿이서 두 손을 반복적으로 내밀며 아파트를 연호하다가 술래가 층수를 외치면, 서로의 손을 쌓아 올려 밑에 있는 손을 위로 쌓아올리며 층수를 매기다가 술래가 매긴 층수의 손 임자가 벌을 받는 게임이다. 마치 운 좋게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니, (귀여운) 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대중적 무의식의 소산일까? 함께 소구된 83년 윤수일의 「아파트」처럼 2024년 「APT」도 연인들의 노래이지만, 이 글은 대중문화 텍스트에는 아파트 없이 아파트를 음화로 새기고 있는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 셈이 되었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수진 극본, 심나연 연출, 「괴물」(2021.02.19-2021.04.10, 16부작), JTBC.

김수진, 『괴물』1,2,3, 북로그컴퍼니, 2021.

봉준호, 「살인의 추억」, 싸이더스, 2003.

봉준호·심성보, 『살인의 추억』, 이레, 2003.

단행본

이윤종, 『애로방화의 은밀한 매력』, kofic, 2024, 370-405쪽.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20, 49쪽, 223-251쪽.

사야크 발렌시아, 최이슬기 옮김, 『고어 자본주의』, 워크룸, 2021, 147-180쪽 참조.

Kyung Hyun Kim, *Virtual Hallyu:Korean Cinema of the Global Er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38-40.

논문

권양현, 「텔레비전드라마 「괴물」(jtbc)의 서사 구조와 클로즈업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92호, 2023, 319-349쪽.

김수연, 「근대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대중영화의 재현: 「살인의 추억」, 「괴물」을 중심으로」,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김철, 「그녀를 죽인 것은 나였을까?」,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89-61쪽.

김항, 「육체 없는 국민의 건강과 혐오-현대 한국의 '정치위생학' 비판」, 『상허학보』61집, 상허학회, 2023, 89-130쪽.

문선영, 「권력으로서 악과 정의실현의 연대-드라마 「「괴물」」(jtbc)을 중심으로」, 『어문논집』91권, 중앙어문학회, 2022, 319-347쪽.

민경조,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통해서 본 봉준호 영화의 공간적 시대 반영성 연구」, 한양대 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배은경,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사회」, 『사회와 역사』 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115-148쪽.

서대승, 「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의 의미 변화와 사회적 경계 형성」,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지향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박배균 외, 동녘, 2017, 318-354쪽.

이승환, 「현대 도시공간 재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관한 연구-「살인의 추억」와 〈극장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6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49-56쪽.

이현수·윤형건·김승현, 「신문광고 사례를 통해서 아파트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한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15권 2호, 한국광고학회, 2004, 67-93쪽

이혜령, 「어느 페미니스트 범죄 서사의 딜레마: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소고」, 『대중서사연구』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223-261쪽.

전민성, 「「살인의 추억」: 홍보, 제작과 관련된 몇 가지 생각」,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213-246쪽.

조문순, 「TV드라마 『「괴물」』에서 장애의 이용』, 『한국장애학』8권 1호, 한국장애학회, 2023, 117-140쪽.

천정환, 「 80년대의 국가·몸·사회: 「살인의 추억」이 '추억'한 것」,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127-160쪽.
채완, 「아파트 이름의 사회적 의미」, 『사회언어학』2권 1호, 사회언어학회, 2004, 231-252쪽.
최아수, 「도농복합시 공간구조의 시공간 역동성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학위논문, 2023.
한미라, 「봉준호 영화의 내러티브 공간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63호 한국영화학회, 2015, 259-287쪽.
황미선, 「죽음 정치와 폭력의 지형학: 멕시코의 프론테라노르테와 사약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 담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32권 1호, 서울대 라틴아메리가연구소, 2021, 79-97쪽 참조.
데이비드 E. 제임스, 김희진 옮김, 「한국 민족영화와 불교」, 『임권택, 민족영화 만들기』, 김경현·데이비드 E. 제임스 외 엮음, 한울, 2005, 53-96쪽.
수 리즈, 전경훈 옮김, 「잔소리꾼, 창녀, 여성해방론자: 남성의 살인 충동을 도발하는 여성」, 『페미사이드』, 다이애나 E.H.러셀·질 레드퍼드, 책세상, 2020, 510-552쪽.
와시타니 하나, 조만영 옮김, 「편재하는 연쇄 살인범, 기억의 공동체」,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지음, 새물결, 2006, 62-80쪽.
이케우치 야스코, 송태욱 옮김, 「『살인의 추억』의 '낯익고도 두려운, 치환된 삼각형'」, 『살인의 추억』,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엮음, 김경욱 외, 새물결, 2006, 81-126쪽.

## Abstract

Serial Murders in South Korean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of (Under-)development
-Focused on Film *Memories of Murder* and Drama *Beyoond Devil*

Lee, Hye-ryoung

This paper seeks to read Korean films and TV dramas with a serial killer storyline as a geographical imagination, which I argue,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South Korean development over many decades. These texts reveal the retrograde shifts in gender and class relations in Korea, made more pronounced by neoliberalism in recent years. I argue that the period from the Hwaseong serial murders (1986-1991) to the Yoo Young-cheol serial murders (2003-2004), was one of simultaneous atrophy of masculinity and misogyny, femicide due to neoliberalization of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y and society. The production of Korean films and TV dramas based on or inspired by these cases, including Bong Joon-ho's *Memories of Murder* (2000) and the drama *Beyond Devil* (2021), proliferated and the serial killer narratives emerged as significant popular cultural texts. These films and TV dramas do not simply use rural villages or poor neighborhoods in Seoul as their settings, but rather, they incorporate the issue of ubiquitous development of middle-class apartment complexes into their narratives, carefully representing these areas as an eerie semi-natural environment or places of underdevelopment. Suggesting that rural areas and urban peripheries are spaces where potential crimes might occur, such representations further promote the universalized desire for this type of middle-class housing, i.e. apartment complexes, in South Korea. On the one hand, these housing developments epitomize South Korean middle-class's heteronormativity and their heightened sense of security, provided by such spaces of dwelling,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also bring about diminishing diversity in terms of spaces, regions, and the environment. The paper offers a broader critique of the cultural exploitation and depletion of imagination, resulting from the most dominant form of urban housing developmen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Key words: *Memories of Murder*, *Beyoond Devil*, serial murders, , (under-) development, geographical imagination, nature, lower-class masculinity, APT, femicide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3.
게재확정 / 2024.12.08.